



#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우리의 람홍색공화국기가 나붓긴다. 꼭두산천지에서 제주도를 깨지 새 기발 높이에 삼천만은 나섰다라고 온 나라 인민이 득청한 노래를 부르며 김일성장군님께 다함없는 감사를 드려민 주제 37(1948)년 역사의 그날로부터 예술임금에 훌렸다.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우리 조국이 걸어온 67년은 남들의 수백, 수천년의 역사에도 비기지 않을 참으로 뛰어난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이 위대한 나라를 일떠세웁니다.

수령이 위대하고 당이 위대하면

작고 뛰어난 나라도 떠올린다

나라를 떠올리면 나라를 떠올리라.

우리 공화국은 이렇게 태여났다

한 민족에게는 진정한 조국이 있어야 하고 참다운 국가가 있어야 하며 위대한 수령이 있어야 한다.

반민년의 진정한 역사와 아름다운 금수강산, 슬기롭고 근면한 인민이 있으며서도 자기의 창다운 조국을 가져보지 못하고 그 고로마저 송두리째 빼앗겨야 했던 우리 민족이었다. 우리 민족사의 피눈물로 얼룩진 갑피를 펼쳐놓은 나리를 찾았다고 국제회의 장에서붉은 피 뿐이며 독립을 구걸해야 했고 너인들의 비녀까지 모아 눈물겨운 국제보상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비참하고 처절한 비파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있는가.

하지만 갑작스럽게는 현실을 이룩할수는없는것이다.

인민의 갈망을 현실로 전환시키는 문제는 비범한 영도적자질과 능력을 경비한 타월한 위인만이 실현 할수있다.

해방후 전조선적인 통일적중앙정부를 세우는것은 천재인민을 국가와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게 하고 그들의 지향과 요구를 실현해나가는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나섰지만 미제와 그 주구들이 남조선에서 『단선성』조작 등을 통해 물질적으로 강행해나서고있던 사태로부터 매우 절실했었다.

위대한 수령께서는 어려차례에 걸쳐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당의 기본방침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파업들을 밝히시면서 통일적인 중앙정부를 세울데 대하여 천명하시였다. 주제 37(1948)년 8월에는 북남통선거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주제 37(1948)년 9월 9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비로소 자기의 창다운 국가, 진정한 조국을 가지게 되었다.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된것은 세계지도에서 빛을 읽었지만 조선이 존엄 있는 자주독립국가로, 주체의 나라로 솟아오르게 한 역사적인 사변이었다. 우리 인민이 국가와 사회의 창다운

로, 권위있는 강국으로 될수 있습니다.』

가슴뿌듯한 긍지와 회열이 넘쳐 흐른 나님이었다. 고난과 시련의 장마을을 밀어던지며 승리를 펼쳐 끌어내는 기적을 창조해온 나님이었다.

조국의 부강번영을 이루하고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천만리길에서,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오늘의 헌진길에서 천만군인이 새겨입은 고귀한 진리를 우리는 온 세상을 향해 터친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존함으로 빛나는 성스러운 우리 당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에 신성하고 거룩함이 저 하늘끝에 닿은 우리 공화국은 억만 명에게 계양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정하는 기방이 처음으로 계양되면서 창으로 격동적인 순간 장내는 불도가니 마냥 끓어버렸다.

김일성동지의 혁전원리를 헤치며 활은 우리 조국의 자랑한 역사와 빛나는 전통, 양생 기상과 영예가 어버이수령님의 새심한 손길이 어려운 그 펴놓이는

공화국기발에 다 비껴있었는가 아닌가.

하기에 후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국가부주석의 침입을 지나면서 그간 강량우선은 늘 대들들에게 국가가 처음으로 계양되면서 그날 국가를 부르시며 공화국기를 걱정속에 바라보니 또 보시던 우리 수령님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이야기 하루 하였다.

내 나라의 창장한 하늘가에 우리 국의 국가가 높이 날랐던 잊을수 없는 그날로부터 장장 수십년세월 공화국기는 한반도 내리워진적이 없었다.

온 나라의 이드는 그곳마다 우리의 국기는 언제나 자랑스럽게 펼쳐있고 세계 무대의 한복판에서도 승리의 기치로 날뛸수 있었다.

김일성장군께서 수상으로 선임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것이다. …

우리 민족주의인민공화국 수상 김일성장군께서는 당시 『로동신문』은 이렇게 전하였다.

『김일성장군께서 수상으로 선임되신 것은 수령님의 도모이 잊혀지지 않는다. …

우리 민족사의 피눈물로 얼룩진 갑피를 펼쳐놓은 나리를 찾았다고 국제회의 장에서붉은 피 뿐이며 독립을 구걸해야 했고 너인들의 비녀까지 모아 눈물겨운 국제보상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비참하고 처절한 비파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있는가.

하지만 갑작스럽게는 현실을 이룩할수는없는것이다.

인민의 갈망을 현실로 전환시키는 문제는 비범한 영도적자질과 능력을

경비한 타월한 위인만이 실현 할수있다.

반민년의 진정한 역사와 아름다운 금수강산, 슬기롭고 근면한 인민이 있으며서도 자기의 창다운 조국을 가져보지 못하고 그 고로마저 송두리째 빼앗겨야 했던 우리 민족이었다. 우리 민족사의 피눈물로 얼룩진 갑피를 펼쳐놓은 나리를 찾았다고 국제회의 장에서붉은 피 뿐이며 독립을 구걸해야 했고 너인들의 비녀까지 모아 눈물겨운 국제보상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비참하고 처절한 비파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있는가.

그리고 애초에 감당해온 민족의 평도자, 위대한 수령, 그이는 30대에 공화국의 첫 국가수반으로 추대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이시였다.

9월을 맞을 때마다 먼저 우리 수령님에 대하여 생각하게 된다고, 이 날은 공화국창건을 선포한 날이라는 의미에서보다 우리 수령님을 자주독립국가의 첫 국가수반으로 높이 추대한 날이라는 더 큰 의의가 있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철철한 가르침이 오늘도 메이리쳐온다.

정전 어느때부터였던가?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이오지 않으리라는 역사의 맹세를 다지시고 결연히 혁명의 길에 나서서 본래부터 끌려온 부류를 몰려주신 두지루의 전총을 밀쳤으므로 삼아 항일대전을 선포하면서 그날부터, 피어난 항일대전의 불길속에서 인민정권 건설로선을 넣으고 유격근거지의 하늘과 첫 국민혁명정부의 기발을 펼쳐놓은 그 시기부터 어버이수령님의 마음속에는 인민이 주인된 진정한 국가, 사회주의의 거리에 소중히 자리잡고 있지 않았던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을 얼마나 일일천주로 고대하였으면, 인민의 나리를 일떠세우는것이 우리 민족사에 얼마나 큰 경사였으면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김정은동지께서 뜻깊은 9.9월날 눈물없이는 읽을수

있어도 세상에 나라마다 기발은 있어도 내 나라의 푸른 하늘에 휘날리는 공화국기처럼 그토록 아름답고 그토록 자랑스럽고 그토록 화망에 찬 기발을 우러는 더는 모른다.

공화국기발은 차운하고 청정한 화양이었다.

세상에 나라마다 기발은 있어도 내 나라의 푸른 하늘에 휘날리는 공화국기처럼 그토록 아름답고 그토록 자랑스럽고 그토록 화망에 찬 기발을 우러는 더는 모른다.

공화국기발!

우리 조국의 영광스러운 투쟁역사와 함께 승리와 번영의 한길로만 풀을 풀을 아름다운 미래가 바로 여기에 다 비껴있다.

년대와 연대를 이어오며, 세대와 세대를 이어오면서도 텔레비전으로 높이 눈부신 그 빛같을 편집없이 간직하고 있는 우리의 기발을 제일로 사랑하고 키우며 여기서며 온 세상에 펼쳐지는 더 큰 의의가 있다

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철철한 가르침이 오늘도 메이리쳐온다.

정전 어느때부터였던가?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

이오지 않으리라는 역사의 맹세를

다지시고 결연히 혁명의 길에 나서서

본래부터 끌려온 부류를 몰려주신

두지루의 전총을 밀쳤으므로 삼아 항

일대전을 선포하면서 그날부터, 피어난 항일대전의 불길속에서 인민정권

건설로선을 넣으고 유격근거지의

하늘과 첫 국민혁명정부의 기발을

펼쳐놓은 그 시기부터 어버이수령님의

마음속에는 인민의 거리에 소중히

자리잡고 있었던가?

우리의 람홍색공화국기발을 그리

도 귀중히 여기며 어버이장군님,

에 국가를 그처럼 사랑하면서 조국에

대한 불을 터뜨려 놓았던가?

언제나 내 조국을 마음속에 안고

사신에 대한 한 푸른 하늘을 향해

나를 품어놓았던가?

언제나 내 조국을 마음속에 안고

사신에 대한 한 푸른 하늘을 향해

나를 품어놓았던가?

언제나 내 조국을 마음속에 안고

사신에 대한 한 푸른 하늘을 향해

나를 품어놓았던가?

언제나 내 조국을 마음속에 안고

사신에 대한 한 푸른 하늘을 향해

나를 품어놓았던가?

언제나 내 조국을 마음속에 안고

사신에 대한 한 푸른 하늘을 향해

나를 품어놓았던가?

언제나 내 조국을 마음속에 안고

사신에 대한 한 푸른 하늘을 향해

나를 품어놓았던가?

언제나 내 조국을 마음속에 안고

사신에 대한 한 푸른 하늘을 향해

나를 품어놓았던가?

언제나 내 조국을 마음속에 안고

사신에 대한 한 푸른 하늘을 향해

나를 품어놓았던가?

언제나 내 조국을 마음속에 안고

사신에 대한 한 푸른 하늘을 향해

나를 품어놓았던가?

언제나 내 조국을 마음속에 안고

사신에 대한 한 푸른 하늘을 향해

나를 품어놓았던가?

언제나 내 조국을 마음속에 안고

사신에 대한 한 푸른 하늘을 향해

나를 품어놓았던가?

언제나 내 조국을 마음속에 안고

사신에 대한 한 푸른 하늘을 향해

나를 품어놓았던가?

언제나 내 조국을 마음속에 안고

사신에 대한 한 푸른 하늘을 향해

나를 품어놓았던가?

언제나 내 조국을 마음속에 안고

사신에 대한 한 푸른 하늘을 향해

나를 품어놓았던가?

언제나 내 조국을 마음속에 안고

사신에 대한 한 푸른 하늘을 향해

나를 품어놓았던가?

언제나 내 조국을 마음속에 안고

사신에 대한 한 푸른 하늘을 향해

나를 품어놓았던가?

언제나 내 조국을 마음속에 안고

사신에 대한 한 푸른 하늘을 향해

나를 품어놓았던가?

언제나 내 조국을 마음속에 안고

사신에 대한 한 푸른 하늘을 향해

나를 품어놓았던가?

언제나 내 조국을 마음속에 안고

사신에 대한 한 푸른 하늘을 향해



#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이 현실로 꽂펴나는 사회주의 우리 조국 값 높은 창조로 인간의 삶은 빛난다

북 청 군 제 2 인 민 병 원 의 사 김 광 춘 동 무

위 대 한 명 도 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참된 삶의 가치는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 당과 혁명  
을 위하여 한생을 바치는데  
있습니다.》

얼마전 우리 가 찾은 북청군  
제 2 인민병원에서는 지난 몇 해  
동안 밭벼를 높은 일부 업종  
성질병들을 간호하면서도 효능  
이 높은 의료기구로 치료하여  
주민들의 호평을 받고있었다.

약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  
치료방법을 받아들인 결과 병원  
에서는 환자들의 편의를 도모하  
면서도 낸만 많은 약물을 절약  
하고있었다.

우리는 이곳 의료일군들에 대  
한 취재과정에 의료기구제작에  
수십년 세월을 바쳐온 의사 김 광  
춘동무에 대한 이야기를 들게  
되었다.

\* \* \*

김 광춘동무가 환자치료에 비  
약물로病을 받아들일 생각을 하  
기 시작한것은 그가 합경남도의  
어느 보건기관으로로동자로 일  
하던 20여년전부터였다.

아픈 주사를 맞지 않겠다고  
때를 쓰는 어린애들과 학생제의  
부작용으로 하여 치료에서 애를  
먹는 환자들을 대할 때마다 그  
는 비약물로病으로 병을 치료하  
는 방법은 없을가 하는 생각을  
자주 하였다.

학장시절부터 탐구심이 강했  
던 그의 마음에 욕망은 불쑥불  
쑥 일었으나 의사로 아닌 주사  
제에 대한 연구사업을 시작해  
어려움에 부딪쳤던 것이다.

하지만 고난의 파도가 보건부  
문제로 휩쓸던 어려움을 시기 병  
원들에서 학생제의 주사약을  
제작하는 사람으로 활동하게  
되었던 것이다.

보건부문에서 일하면서 지금  
껏 자신과 가정이 공기처럼  
사롭게 받아들이던 사회주의의 보  
건제도의 고마움에 대하여 더더

속 사무처에 철강하게 된 그였  
다. 한때 인생의 길을 잘모들던  
한 자신을 품어안아 새 삶의 길  
에 세워준 나라의 은혜를 생각  
할수록 김 광춘동무는 더이상 주  
제할수 있었다.

(나도 보건부문의 한 사람이  
아닌가, 우리의 사회주의 보건제  
도를 받드는 일인데로동자라고  
해서 외면할수는 없다.)

어느날 문헌조사를 하면 그는  
항상성의 파피로 인한 병적인  
파장을 그 어떤 기구를 이용  
하여 정상으로 회복하면 질병치료  
로가 될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  
게 되었다.

그때부터 김 광춘동무는 껌시  
간을 아끼가며 미지의 학문의  
세계를 파고들었다. 때로 그것

이 려워지지 않을 때면 여러번  
꼼꼼이 읽어보기도 하였고 그때  
도 잘 가슴이 가지 않으면 평양  
과 도인의 대학교원들에게 전화  
를 걸어 그 진수를 파악하기 위  
해 애를 썼다.

몇 해후 김 광춘동무는 그렇게  
도 고심하여 의료기구의 실제를  
자각을 얻고 단 한 해사이에 그  
토록 어려운 의료기구의 기술적  
파장을 그 원만히 확증하였다.

이제 남은것은 병원에서의 힘  
상점뿐이었다. 성공의 순간은  
비로소 눈앞에 다가온듯싶었다.

당의 은정이란 조치에 따라 김  
광춘동무는 2000년 가을 함  
동의 학대학을 통신으로 출입하  
며 페를 달성했다는 그것으로 하  
여 미운은 더없이 기뻤다.

그 다음에 그는 뜻밖의 일을  
저질렀다. 이온반응치료기를  
임상실에서 도입한 결과 환자  
의 상태에 외상으로 더욱 악화  
되었던것이다. 제때에 바로 잡았  
기며 망정이지 떨어길수 없는  
후과를 초래한 활동하였다.

문제가 심각하였던 것처럼 그  
후 회의에 참가한 일부 의료일  
군들을 김 광춘동무의 의사격  
제작을 위해 평범한 동료로  
평가되었던 의사들이 이를

그때를 돌아보며 김 광춘동무  
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조직과 집단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저는 그 힘겨운 고비를  
해 전 환자, 당당의 의료일군들이  
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김 광춘동무는 말하였다.  
『지식이 모자라면 배워서라도

기여이 해내겠습니다. 도와주십  
시오, 선생님!』

연구사는 뜨거운것을 삼키며  
그의 손을 잡았다. 그때부터 김  
광춘동무는 연구사업에의 긴밀한  
관계 속에 긴장한 탐구의 날과  
날을 보냈다.

김 광춘동무는 한가정의 세대  
도를 받드는 일인데로동자라고  
해서 외면할수는 없다.)

어느날 문헌조사를 하면 그는  
항상성의 파피로 인한 병적인  
파장을 그 어떤 기구를 이용  
하여 정상으로 회복하면 질병치료  
치료가 될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  
게 되었다.

그때부터 김 광춘동무는 껌시  
간을 아끼가며 미지의 학문의  
세계를 파고들었다. 때로 그것

이 려워지지 않을 때면 여러번  
꼼꼼이 읽어보기도 하였고 그때  
도 잘 가슴이 가지 않으면 평양  
과 도인의 대학교원들에게 전화  
를 걸어 그 진수를 파악하기 위  
해 애를 썼다.

몇 해후 김 광춘동무는 그렇게  
도 고심하여 의료기구의 실제를  
자각을 얻고 단 한 해사이에 그  
토록 어려운 의료기구의 기술적  
파장을 그 원만히 확증하였다.

이제 남은것은 병원에서의 힘  
상점뿐이었다. 성공의 순간은  
비로소 눈앞에 다가온듯싶었다.

당의 은정이란 조치에 따라 김  
광춘동무는 2000년 가을 함  
동의 학대학을 통신으로 출입하  
며 페를 달성했다는 그것으로 하  
여 미운은 더없이 기뻤다.

그 다음에 그는 뜻밖의 일을  
저질렀다. 이온반응치료기를  
임상실에서 도입한 결과 환자  
의 상태에 외상으로 더욱 악화  
되었던것이다. 제때에 바로 잡았  
기며 망정이지 떨어길수 없는  
후과를 초래한 활동하였다.

문제가 심각하였던 것처럼 그  
후 회의에 참가한 일부 의료일  
군들을 김 광춘동무의 의사격  
제작을 위해 평범한 동료로  
평가되었던 의사들이 이를

그때를 돌아보며 김 광춘동무  
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조직과 집단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저는 그 힘겨운 고비를  
해 전 환자, 당당의 의료일군들이  
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김 광춘동무는 말하였다.  
『지식이 모자라면 배워서라도

원일군들과 동지들은 저에게  
의사는 인간생명의 기사라고  
하던 위대한 수령님들의

가르치심의 창뜻을 깨우쳐주었  
고 연구사업에서의 약점을

제주에 긴장한 탐구의 날과  
날을 보냈다.

김 광춘동무는 한가정의 세대  
도를 받드는 일인데로동자라고  
해서 외면할수는 없다.)

어느날 문헌조사를 하면 그는  
항상성의 파피로 인한 병적인  
파장을 그 어떤 기구를 이용  
하여 정상으로 회복하면 질병치료  
치료가 될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  
게 되었다.

그때부터 김 광춘동무는 껌시  
간을 아끼가며 미지의 학문의  
세계를 파고들었다. 때로 그것

이 려워지지 않을 때면 여러번  
꼼꼼이 읽어보기도 하였고 그때  
도 잘 가슴이 가지 않으면 평양  
과 도인의 대학교원들에게 전화  
를 걸어 그 진수를 파악하기 위  
해 애를 썼다.

몇 해후 김 광춘동무는 그렇게  
도 고심하여 의료기구의 실제를  
자각을 얻고 단 한 해사이에 그  
토록 어려운 의료기구의 기술적  
파장을 그 원만히 확증하였다.

이제 남은것은 병원에서의 힘  
상점뿐이었다. 성공의 순간은  
비로소 눈앞에 다가온듯싶었다.

당의 은정이란 조치에 따라 김  
광춘동무는 2000년 가을 함  
동의 학대학을 통신으로 출입하  
며 페를 달성했다는 그것으로 하  
여 미운은 더없이 기뻤다.

그 다음에 그는 뜻밖의 일을  
저질렀다. 이온반응치료기를  
임상실에서 도입한 결과 환자  
의 상태에 외상으로 더욱 악화  
되었던것이다. 제때에 바로 잡았  
기며 망정이지 떨어길수 없는  
후과를 초래한 활동하였다.

문제가 심각하였던 것처럼 그  
후 회의에 참가한 일부 의료일  
군들을 김 광춘동무의 의사격  
제작을 위해 평범한 동료로  
평가되었던 의사들이 이를

그때를 돌아보며 김 광춘동무  
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조직과 집단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저는 그 힘겨운 고비를  
해 전 환자, 당당의 의료일군들이  
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김 광춘동무는 말하였다.  
『지식이 모자라면 배워서라도

그의 어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자주 왔었다.

진료소의 의료일군들은 레안  
의 전쟁로병, 영예군인들과 나  
란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을 늘  
돌아온 치료를 위해 대상으로 등  
록하고 수시로 찾아와 보살펴

주었다. 황진을 칭송하며 깊은 밤  
에도 웃으며 달려왔고 때로 의  
사를 부르기 미안하여 진통을

참으며 진료소로 가면 큰일이나  
난듯 섭섭해하며 극진히

음식들을 여려차례 가져다주기  
도 하였지만 환자의 건강은 날  
이 갑자기 따라 더욱 악화되었다.

환자는 이제 더는 황생제 주  
사를 맞을수 없는 형편에 이르  
렀다. 방도는 하나 해당 치료를  
주었지만 환자를 살피면서

제주에 온은 반응치료기의 회전수  
와 세기 등을 과학적으로 정립  
하고자 결국의 여러곳으로 출장  
길을 이어갔다.

그러자 병원의 어려운 의사, 간  
호원들이 환자의 이름을 자기들의  
기정에서 돌볼것을 제기하였다.

『난 병이 깊다는 이유 하나로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한 사람들  
과 똑같이 당당의 의사의 각별한  
한은반응치료기의 치료수법을

모습을 눈물속에 바라보며 자랐  
소, 나쁜이 아니던 당신도, 우리 가  
정도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덕을  
얻으며 살고있지 않소. 그 고마  
운은데 나의 지혜와 땀이 스  
민의 치료를 통해 고맙고 험난한  
길을 가는 거요.』

그리고나서 또다시 병원으로  
나가는 남편을 비롯하여 최금숙  
여성은 많은것을 생각했다고 저  
인민의 참된 의사로 살기 위해  
애쓰고자 했다.

오늘 세월 헌 의료일군의 남  
다른 탐구의 길을 목표로 펴밀  
통로에 여러 도민민족에서 김 광  
춘동무의 눈물을 흘리면서

제주에 온은 반응치료기의 치료  
수법을 소개하고자 했던 그녀는  
모든 단계를 거쳐 자신의

창조물을 김 광춘동무는 의사  
의 향을 걸고 과학적으로

전개될 예정이었다. 멀리 떨어  
진 삼금병원에 까지 가지 않고  
서도 황생제 주사를 전혀 쓰지  
않으며 병을 고쳤다는 것은 그  
녀성은 두고두고 잊을수 없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로부터 몇 해 후 김 광춘동무  
는 김 광춘동무의 의사격을  
제발 그만둬요.』

어느 날 중학교에 다니는  
딸 지향이 밤늦어 집에 들어  
서는 김 광춘동무에게 분을 터  
뜨렸다.

『지금 사람들이 뛰어는지 알  
아요? 아버지가 집살림을 불구  
하고 연구사업을 구실로 몇해째  
출장을 다니다고 해요. 날 더  
이상 참아서 학교에 못 다니  
겠어요. 아버지, 강남밥에 소금  
을 짹이어서도 좋으니 그 일만은  
제발 그만둬요.』

어린 딸의 말에 놀라며 그녀는  
내려온 김 광춘동무를 향해  
제자리에 앉아 그를 향해  
『아빠, 저도 그 힘겨운 고비를  
해 전 환자, 당당의 의료일군들이  
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때를 돌아보며 김 광춘동무  
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지식이 모자라면 배워서라도

리고 환자의 가정을 들보는 그  
것만으로써는 가슴벅차게 들을  
수 없었을 만세소리,

그 소리를 들으며 이곳 의료  
집단은 의학파학기술선포파로  
사회주의보건제도의 고마움을 일  
제에 환자를 살피면서

그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창일, 김성룡등을 비롯한  
한국의 학자들이 환자들의

기정에서 벗어나 다른 치료법을  
제기하고 환자에게 적용해온  
한국의 학자들이 환자에게

제기하고 환자에게 적용



# 백승의 위력멸치는 일심단결의 강국

위대한 혼연일체의 회복이 자랑스럽게 펼쳐지고 있는 사회주의 내 조국땅에 온 나라 천만군민이 심장으로 떠치는 수령절사 움직임의 노래가 끊없이 울려퍼지고 있다.

그 어떤 시련과 도전도 파감히 짓부시고 오직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만을 끝까지 밀고 따르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과 의지가 노래의 구절마다에 막바지 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의 한 언론은 〈지금 북녘 동포 속에서는 〈우리는 당신들에 모른다〉, 〈불리는 소원〉을 비롯한 노래들이 특별히 애창되고 있다.』고 하면서 〈그것은 바로 그들이 자기 평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칭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라고 전하였다.

돌이켜 보면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혁명의 전두에 높이 모시고 투쟁해온 나날들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그의 두리에 뜻과 정으로 굳게 풍진 창조와 혁변의 위대한 서사시를 펼쳐놓은 자랑한 승리의 나날이었다. 하기에 남녘에서는 혼연 일체, 일심단결의 위력을으로 세계가 부러워 하는 천하제일 강국,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일컬어 우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이북으로 진리를 더욱 깊이 새겨안고 있다.

한생을 떠나 연구에 바치였다는 남조선의 한 역사학 교수는 자기 동료에게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60돐 경축행사의 장엄한 화폭을 독화물로 본격 통된 심정을 이렇게 평하였다.

『첨단기술을 모방하기는 어렵지 않다. 선진국을 따라온 것은 국민소득을 높이는 것도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북에서만 볼 수 있는 평도자와 인민의 혼연일체는 이 세상 어느 나라도 어느 위도로 세례를 해낼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이북만이 창조한 천하유일의 재보이고 핵무기로 당해낼 수 없는 천하유일의 무기이다.』

최근 남조선의 한 신문에는 이런 글이 실려 수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었다.

〈이북 사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평도자와 군대, 인민이 일심통체라는 사실이다. 지구상에 평도자의 두리에 굳게 풍진 군대와 인민을 가진 나라는 이북밖에 없다. 자기의 평도자를 푸어버리고 부르며 그분을 봐오면 뜨거운 눈물과 열렬한 활호로 인덕으로 화합된 이세상에 더는 없는 일심단결의 나라〉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이북에서는 평도자님께서 출정하시어 민중이 일심단결되며 온 사회가 화목한 대가정이 이루고 있다. 평도자와 민족이 일심단결된 이 회한 현실은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을 수 없는 신비경이리 아니 할수 없다. 이북은 일심단결의 나라, 평도자와 민족이 혼연일체된 한민족으로 위력한 이북의 무비의 힘앞에서 제국주의 세력을 넘을 수 있다.〉

세상에 인민들의 미움과 뜻으로 합친 것보다 위력한 힘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어느 나라에도, 어떤 정치조직도 그것을 실현하지 못했다.

온 사회가 하나의 뜻으로 풍치하고 협연의 정으로 다져진 정치사상강국, 일심단결의 나라는 오직 우리 공화국뿐이다. 전당,

전군, 전민이 수령을 중심으로 사상의 지적으로, 도덕의 의리적으로 굳게 풍쳐 있고 온 사회가 서로 둘고 이끄는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 있는 것은 우리식 사회주의의 철학적 특성이며 무한대 한 힘의 원천이다.

백두에서 뿌려내린 우리 혁명의 혼연일체의 전통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에 의하여 굳건히 계승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일심단결을 선행하며 우리를 경제적으로 질식시켜 천민군민의 일심단결을 해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 그러나 원쑤들의 그 모든 간계는 걸음마다 산산조각이 나고 있다.

선군조선의 새시대에 펼쳐지는 일심단결의 숭고한 화폭을 보면서 온 거에는 파연 무었을 깨달았던가.

언제인가 남녘땅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정치를 소개한 한 재미동포언론인의 글이

이제까지는 저마다 판문을 으킨 적이 있었다.

필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북녘동포가 가슴깊이 쟁여온 평도자사랑〉이라는 제목의 조국방위기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력정치는 감동 그자체이며 수많은 일화를 담고 있다.

하면서 학폭과 같은 강한 천만민의 일심단결을 넣는 그 끝으로 인민사랑의 정치로 하여

공화국의 미래는 밝고 창창하다고 결론이 칭송하였다.

바로 그것이다. 평도자의 사랑이 인민의 배후를 냉고 그것이 한데 어울려 일심단결을 이룬것이 바로 우리 공화국의 모습인 것이다.

민심은 돈으로 얻을 수 없고 강요로도 웃을 수 없다. 인민은 이를 위한 참다운 정체, 리상적인 정치를 펼치는 평도자를 인민은 스스로 믿고 한결같이 따르는

최근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 국고립 압살책 등은 그 어느때보다 악랄해지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반공화국제재소통을 계단식으로 확대하며 우리를 경제적으로 질식시켜 천민군민의 일심단결을 해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

법이다. 끝없는 매혹과 흡모로 가슴 물매우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산악같이 일떠선 군대와 인민의 열화같은 충정으로 우리 공화국의 일심단결은 최상의 경지에 이르렀으니 어찌 날 네 겨레가 경쟁판파 부터 읊을 허놓지 않겠는가.

선군으로 존엄높고 일심단결로 힘차게 전진해나가는 우리 공화국이 있어 민족의 존엄파자주권이 굳건히 수호되고 민족의 창활한 밤이 밝아온다는 것은 남녘인민들의 삶장속에 굳게 간직된 진리이고 신념이다.

남녘인민들은 자기들의 변함없는 의지를 담아 이렇게 웨치고 있다.

『자기 평도자를 어버이로 따르는 불같은 충정의 마음들, 오직 자기 수명, 자기 당, 자기 조국방위기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력정치는 감동 그자체이며 수많은 일화를 담고 있다.

하면서 학폭과 같은 강한 천만민의 일심단결을 넣는 그 끝으로 인민사랑의 정치로 하여

공화국의 미래는 밝고 창창하다고 결론이 칭송하였다.

바로 그것이다. 평도자의 사랑이 인민의 배후를 냉고 그것이 한데 어울려 일심단결을 이룬것이 바로 우리 공화국의 모습인 것이다.

온 곳에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두리에 천재배로 통친 우리 군대와 민족의 일심단결을 위하여 펼칠 영원한 마음들이 굳수하고 있다.

공화국은 지난 세기말 최악의 시련과 역경에서도 사회주의 기치를 수호하였을 뿐 아니라

강성국가건설의 세세대를 펼치

## 로 씨 야, 캄보지의 신문, 방송들 특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7돐에 즈음하여 로씨야, 캄보지의 신문, 방송들이 8월 20일부터 28일 까지의 기간에 특집하였다.

로씨야신문 〈콤쓰몰스카야 브라우다〉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을 모시고 영웅적 조선인민군의 위력과 평양시전경을 보여 주는 사진과 함께 〈불의의 사회주의 강국〉이라는 제목의 글을 옹관 한면에 펼쳤다.

신문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지금으로부터 67년 전인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폐의 사회주의 강국으로 걸어난다.

로씨야신문 〈나흐트진스끼 라보리〉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과 함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되었다〉.

미국의 대조선 압살아당은 영원히 실현될 수 없는 양상이다.

그것은 첫째로, 사회주의 조선이 위대한 수령들을 모시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조선 압살아당은 영원히 실현될 수 없는 양상이다.

둘째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과 함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되었다〉.

신문은 반만년의 유구한 혁사와 전통을 물려 주고자 하는 조선인민은 오늘 자기 발전의 최점성기를 맞이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폐의 사회주의 강국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 나라의 암살자와 TV 및 라디오방송도 같은 내용으로 보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조로 공동사진 및 미술전람회

### 로 씨 야에

조로공동사진 및 미술전람회가 1일 로씨야 하바롭스크시에서 개막되었다.

조선관광명예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 있다.

조선관판은 위대한 김수령님들의 태양상에 꽂혀서 고전적 작품들과 우리 인민의 습기와 재능이 깊은 미술작품들이 전시되었다.

조로공동사진 및 미술전람회는 로씨야 하바롭스크번 강정부문과 함께

### 서진행

조하였다. 로조공동사진 및 미술전람회가 하바롭스크시에서 개막된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두나라는 70년전 공동의 원주인 일제를 타파하였으며 여러 군부총명사와 병사들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에 꽂혀서 고전적 작품들과 우리 인민의 습기와 재능이 깊은 미술작품들이 전시되었다.

로씨야 하바롭스크번 강정부문에서는 조선관판의 일정을 확정하였다. 전람회는 15일까지 계속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담화를

### 여러나라에 보도

국자들의 발언이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저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대변인은 북남관계는 결코 어느 일방의 성의나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면서 〈우리는 남조선당국의 차운직업임직과 그 어느 때보다 더 각성있게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일본은 돈으로 얻을 수 없고 강요로도 웃을 수 없다. 인민은 이를 위한 참다운 정체, 리상적인 정치를 펼치는 평도자를 인민은 스스로 믿고 한결같이 따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담화는 조선당국에 저지른 행위에 저속되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에 대한 책임을 물고자 한다.〉고 되었다.

대변인은 조선이 표명한 〈유감〉과 비무장지대에서 벌어진 의문의 사건에 대한 조선의 〈사파〉를 미리 조작하고 있으며 최후승리를 확신하고 있다.

조선당국은 북남공동보도문의 합의발표를 어리석게 해석하여 주목하게 되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로 씨 애에서

제2차 세계 대전 종결 70돐 경축 대회 언급하고 그들의 위훈에 대해 표시하였다.

이어 로씨야국기, 승리의 기, 군기들을 드는 기발종대와 조국전쟁시기의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 지나갔으며 《C-Y-30CM》전투기, 《C-Y-25》습격기 그리고 각종 군용직능기들이 치파상공을 비행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와 계약된 일정을 펼친 것이다. 전람회는 15일까지 계속된다.

### 열병식 진행

그뒤로 따라 위대한 조국전쟁시기의 전투기기술자들과 《C-Y-300》제공기, 《C-Y-72》평크 등 50여대의 무장장비들이 지나갔으며 《C-Y-30CM》전투기, 《C-Y-25》습격기 그리고 각종 군용직능기들이 치파상공을 비행하였다.

두나라는 10년전 공동의 원주인 일제를 타파하였으며 여러 군부총명사와 병사들이 참가하였다.

두나라는 10년전 공동의 원주인 일제를 타파하였으며 여러 군부총명사와 병사들이 참가하였다.

두나라는 10년전 공동의 원주인 일제를 타파하였으며 여러 군부총명사와 병사들이 참가하였다.

두나라는 10년전 공동의 원주인 일제를 타파하였으며 여러 군부총명사와 병사들이 참가하였다.

두나라는 10년전 공동의 원주인 일제를 타파하였으며 여러 군부총명사와 병사들이 참가하였다.

두나라는 10년전 공동의 원주인 일제를 타파하였으며 여러 군부총명사와 병사들이 참가하였다.

두나라는 10년전 공동의 원주인 일제를 타파하였으며 여러 군부총명사와 병사들이 참가하였다.

두나라는 10년전 공동의 원주인 일제를 타파하였으며 여러 군부총명사와 병사들이 참가하였다.

두나라는 10년전 공동의 원주인 일제를 타파하였으며 여러 군부총명사와 병사들이 참가하였다.

두나라는 10년전 공동의 원주인 일제를 타파하였으며 여러 군부총명사와 병사들이 참가하였다.

두나라는 10년전 공동의 원주인 일제를 타파하였으며 여러 군부총명사와 병사들이 참가하였다.

두나라는 10년전 공동의 원주인 일제를 타파하였으며 여러 군부총명사와 병사들이 참가하였다.

두나라는 10년전 공동의 원주인 일제를 타파하였으며 여러 군부총명사와 병사들이 참가하였다.

두나라는 10년전 공동의 원주인 일제를 타파하였으며 여러 군부총명사와 병사들이 참가하였다.

두나라는 10년전 공동의 원주인 일제를 타파하였으며 여러 군부총명사와 병사들이 참가하였다.

두나라는 10년전 공동의 원주인 일제를 타파하였으며 여러 군부총명사와 병사들이 참가하였다.

두나라는 10년전 공동의 원주인 일제를 타파하였으며 여러 군부총명사와 병사들이 참가하였다.

두나라는 10년전 공동의 원주인 일제를 타파하였으며 여러 군부총명사와 병사들이 참가하였다.

### 사회적 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수리야에서 토평을 발표하였다.

8월 23일 수리야 군에는 라파끼아시의 북부지역에 대한 공습을 가하여 50여명의 토평을 살해하였다.

수리야에서 알제리에서 2. 4분기에서 남부총명사에 대한 기관총을 치고 3. 9% 성장하였다.

특히 원유공업부문에서 많은 성과가 이룩되었다 한다. 8월 31일 이나라에서 통신이 밝혔다.